

[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]

롯데건설 수배전설비 작업 중 아크 화재 사고 件

안전기획팀
'22.11.04. 10:00

□ **시공사** : (주)롯데건설 (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위) _ 중처법 시행후 두번째

□ **현장개요**

▪ 현 장 명 : 가스복합 CHP EPC 건설공사 현장현장 (충남 예산 집단에너지시설)

□ **재해내용**

'22.10.19(수) 14시 11분경 정전 중인 전기 케이블 내전압 테스트 후 재체결 작업 중 수공구(스패너)가 떨어져 충전부(6.9kV) 접촉으로 전기아크에 의한 화재 발생, 재해자 전신3도 화상 입고 치료중
11. 01 사망

□ **재해사진**



□ **피해상황**

- ▷ 인적피해 : 1명 사망
- ▷ 물적피해 :

□ **사고원인 추정**

- ▷ 하부차단기의 고압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상태에서 수공구 낙하로 전기아크 폭발 발생
- ▷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

□ **당사 현장 조치사항**

- ▷ 재해사례 전파
- ▷ 전기 수전 이후 전기실 작업시 정전작업을 실시하고 당사 관리자 입회하에 판넬 전원차단 잔류전하를 점검(검전기 전압 확인필)
- ▷ 작업자에게는 활선경보기 지급 및 절연보호구 착용 조치
- ▷ 수변전 설비 작업시 상기 사고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대책 수립 후 작업 실시

■ 언론 보도자료(YTN 외)

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 현장에서 감전된 50대 근로자 치료 중 숨져



2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예산 삼교읍 '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' 현장 출입구 모습

대기업 건설현장에서 하청으로 일하던 50대 근로자 A씨가 감전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.

2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남 예산 삼교읍의 '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 건설공사' 현장에서 전선 접지작업 중 감전돼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근로자가 14일 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사망했다.

사망 원인은 전기감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전신화상이다.

A씨는 예산 삼교읍의 충남내포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달 19일 오후 2시께 전선 접지작업을 하다 감전돼 3도 화상을 입고 헬기로 긴급 후송돼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.

A씨는 현재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경찰은 원청업체인 L건설과 하청업체 S건설 관계자를 소환해 과실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.

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관할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은 L건설사와 하청업체 관련자를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.

경찰 관계자는 "A씨는 80%에 이르는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으며 한동안 대화를 하는 등 건강이 호전됐으나 이날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"고 말했다.

감전사고 당시 A씨는 현장에 있던 동료 B씨가 발견해 즉시 소화기 2대를 이용해 불을 끈 뒤 119에 신고해 헬기로 긴급 후송돼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.